

곡성 백세미 누룽지 ‘아마존’ 입점



곡성군 대표 쌀 백세미로 제작한 가마솥 수제 누룽지가 세계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 아마존에 진출했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아마존을 통해 판매될 백세미 가마솥 수제 누룽지가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장성비축기

‘전남도 브랜드관’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 선포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첫 선정 인기

지에서 선적됐다. 백세미 누룽지는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관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 전남도는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지방정부 최초로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했다. 현재 전남도 농수산 가공식품 수출기업 24개사에서 50개 제품을 판매

하고 있다. 이번 입점으로 곡성군이 자랑하는 백세미로 만든 누룽지도 추가되면서 상품 구성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백세미는 곡성군의 특화미로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중 하나다. 향이 뛰어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백세미 누룽지는 백세미를 가마솥에서 수제 방식으로 만든 가공식품이다. 백세미

특유의 맛과 향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다른 누룽지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좋다. 곡성군 관계자는 “백세미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전 세계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적식에 참여한 한승준 석곡농협 조합장은 “백세미 누룽지 입점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백세미 쌀 자체를 아마존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석곡농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최근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장성비축기지에서 세계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 아마존을 통해 판매될 백세미 가마솥 수제 누룽지를 선적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 백세미는 올해까지 4년째 완판을 기록하는 등 국내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석곡농협에서 2016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최근 3년간(2017~2019년)에 이어 올해도 1천여t 완판 신화를 기록했다.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찰집과 구수한 누룽

지 향까지 나는 특허 쌀로서 소비자에게 인정받았고 해마다 판매량과 매출액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백세미는 지난 5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처음으로 선정됐다. /곡성=이호산기자



순천시는 최근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숲과 동천 그린웨이에 식재된 이팝나무, 편백나무 등 15종 506주를 반려나무로 시민들에게 분양했다. 분양된 반려나무는 시민들이 직접 이름표를 달고 매년 수목을 가꿀 수 있도록 퇴비와 모종삽을 배부했으며 전문가를 초청, 매년 2회 이상 제초, 퇴비주기, 가지치기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순천시 제공>

순천, 1천만그루 나무심기 반려나무 분양

시민의 숲·동천 그린웨이 이팝나무 등 15종 506주

순천시가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반려나무 준비 물량이 시민들에게 모두 분양됐다. 반려나무 분양은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에게 녹색 휴양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숲과 동천 그린웨이에 식재된 이팝나무, 편백나무 등 15종 506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한 만큼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규모로 체험 행사를 진행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반려나무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분양된 반려나무는 신청자가 직접 반려나무 이름표를 달고 매년 수목을 가꿀 수 있도록 퇴비와 모종삽을 배부했으며 시민들이 수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 매년 2회 이상 제초, 퇴비주기, 가지치기 등 반려나무를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1천만그루 나무심기 홈페이지(h.https://www.suncheon.go.kr/tree)에 시민이 반려나무를 등록·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번 분양한 반려나무 자료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를 대비해 도시 전제를 정원으로 바꾸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려나무를 심고 가꾸는 1천만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28만 시민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남정민기자

곡성군, 심청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곡성군은 23일 “오는 30일까지 심청상품권 가맹점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심청상품권 가맹점 980개소에 대해 현재 사업장 운영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폐업 신고 이후에도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해지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는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이 진행하게 된다. 각 읍·면 별로 심청상품권 가맹점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각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심청상품권 앱 사용법을 교육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사용법을 전파할 계획이다. /곡성=이호산기자

곡성군, 생태하천보전 ‘물관리 대상’ 수상

곡성군이 최근 열린 영산강 삼진강 하천 및 우리강 맑은물 포럼에서 삼진강 생태하천보전 분야 하천 물관리 대상을 수상했다. 삼진강과 보성강에 둘러싸인 곡성군은 하천 생태 보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천 물관리 대상은 삼진강 침실습지 복원, 대왕강 생태탐방로 조성 등 자연의 생태적 활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월봉습지 보존, 하천지킴이 사업과 같은 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생태하천 보전분야 하천물관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럼을 주관한 박정수 영산강 삼진강 한마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고 적극적인 보존사업 추진으로 하천 보호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물은 흘러야 한다’를 주제로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동악아

트홀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영산강과 삼진강의 물 문제 해결 및 하천 보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 또한 삼진강 유역 수로 변경으로 인한 수생태 변화 및 유량 부족 문제, 영산강 상수원의 수질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을 고민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은 민관이 공동 협의체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곡성군,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를 비롯해 영산강네트워크 21개 단체, 삼진강 환경협의회 15개 단체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민관이 함께 생태하천 보전 및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삼진강댐 급방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삼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 삼진강과 보성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곡성=이호산기자

순천시 ‘위기가구 지원’ 30일까지 연장

순천시는 23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마감일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재 5천278가구가 신청해 예상가구(5천728가구) 대비 92%의 신청률을 기록했고 시는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천원)이면서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해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소득이 감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작성만으로도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11월 30일 1차 지급될 예정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세회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 등), 공무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남정민기자

SINCE 2000 전국 최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기관

NAVER

코리아정보리서치

검색

주 | 코리아정보리서치

- 2018년 지방선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건수 기준 전국 3위
- 공공기관 주민설문조사 최대 시스템 운영
- 국내 최대 여론조사용 4,000회선 보유

http://www.sulmun.co.kr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0길 12, 4층 TEL : 02-2650-4255
 광주본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2-10 한미빌딩 3층 TEL : 062-225-4505
 중부본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22번길 14, 3층 TEL : 042-368-4600
 EMAIL : 1000news@hanmail.net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주민의견은 여론조사로!